

사설

‘인간4사운동’ 확산시키자

은 국민이 무기력해지는 듯한 요즘 진각종이 올해 새 사업으로 벌이기로 한 ‘인간4사 운동’은 자못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4사’란 인사, 감사, 봉사, 회사를 말한다.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며 도와주고 베풀기를 많이 하여 이 사회를 윤택하게 가꾸자는 것이다.

진각종은 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누구에게나 내가 먼저 인사하기 △은혜의 자리마다 성심으로 보은하기 △어렵고 굶은 일에 내가 먼저 솔선하기 △모든 수입의 1%를 성금으로 내기 등을 밝힌다고 한다. 한 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이의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볼 때 불자뿐 아니라 온 국민이 동참하여 이 병든 사회를 다시금 밝고 건강하게 재건하고 불교의 이상사회의인 정토세상을 구축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은 국민이 격정하고 있듯이 근래 들

어 우리 사회는 더욱 황폐화해 가는 느낌이다. 사회의 어느 부문을 봐도 구실력은커녕 온전하게 운행하고 있는 구석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럴 때는 종교계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국가나 사회지도자들의 권위가 최악의 상황으로 실추되고 지도력은 물론 ‘말의 힘’마저 상실한 시대엔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 따라 난세를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힘을 뭉쳐 타개해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각종의 인간4사 운동은 시의적절한 일종의 시민계몽운동이라고 평가 받을만하다 하겠다. 진각종 내부부터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그 결과가 불교계 전체로,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구성구적으로 확산 파급돼 암울하고 답답함을 말끔히 씻어내고 밝고 건전한 사회로 변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외국인스님은 한국불교 포교사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부터 외국인 스님들에게도 종단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일정한 시설을 지정, 지원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향한 종단의 새로운 발돋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외국인 스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수행기관 회계사 국제선원, 연동국제불교회관 국제선원, 무상사 등에서 정진하는 스님이 100여명을 넘고 있다. 그들이 비록 외국 인이기는 하지만 불교문화의 체험과 수행을 익힌다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통한 해외 포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송광사 국제선원을 거쳐간 외국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활동하면서 한국불교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있지만 한국불교의 승적을 갖지 않았

기 때문에 소속감의 결여로 인한 책임있는 성과가 미약하였다.

이제 외국인 승려도 국적을 초월하여 명실상부한 조계종의 재적 승려로 수행정진하고 포교 전담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불제자로서의 자부심뿐 아니라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스님이라는 자긍심으로 국내외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원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국대학교 언어연구원에서 1년 과정의 한국어 연수를 준비하고 있고, 초발심자경문, 치문, 서장, 조사 어록 등의 영어교재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종단의 교육불사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니 만큼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인사·감사·봉사·회사 생활화  
올해 ‘인간 4사 운동’ 실천

진각종, 통리원·복지재단·신도회 망라

진각종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올 한 해 동안 대대적인 시민계몽 운동을 펼친다. 진각종(총리원장 효암)은 화해와 보은, 선행과 보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의미의 ‘인간 4사 운동’을 벌여나간다고 1월28일 밝혔다.

‘4사’는 △인사-서로 존중하기 △감사-서로 고마움을 느끼기 △봉사-서로 도와주기 △회사-서로 베풀기를 일컫는 말로, ‘인간 4사 운동’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것과 함께 불교정신을 통한 건

전한 사회 가꾸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 4사 운동’에는 통리원, 복지재단, 신도회 등 진각종의 모든 교도가 함께 참여한다. 우선 진각 복지재단은 ‘후원엽서’를 제작, 공공기관과 일반인들에게 배포해 봉사와 자비 정신을 고양시킬 방침이다. 또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해오던 ‘진각복지 119’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진각복지 119’는 도움이 긴급한 빈곤층에게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스리랑카에 ‘한국문화홍보관’을 개관하고, 네 팔에서는 저소득 가정 중학생 및 자녀들을 위한 무료학습 및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인간 4사 운동’을 보급한다.

통리원은 복지재단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각 심인당과 복지재단 산하 시설 및 종립학교 등지에 캠페인 현수막을 내걸고 ‘인간 4사 운동’의 취지를 적극 홍보한다. 또한 장묘문화개선 및 환경보호 캠페인 등 청정국토가꾸기 운동을 추진하며, (가칭)심인인권위원회를 설립해 외국인 노동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를 초청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계몽 강연회도 실시한다.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는 지난해부터 벌여오고 있는 ‘좋은 인(因)을 지음시다’ 캠페인 대상을 일반시민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총금강회는 스티커를 제작, 가정 및 자동차에 부착토록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에는 대구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제’를 개최, 청소년들에게 화해·봉사·보시 정신을 일깨운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apa.com

북한에 외투 2만벌  
 북한지역 어린이 지급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자강도 량강도 등 북한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방한 외투 2만벌을 2월 8일 조선불교도연맹에 위탁 전달한다.

북한에 전달되는 총 3억원 상당의 방한외투 2만벌은 천태종 진각종 등 25개 종단의 모금액 1억8천여만원과 1억2천여만원의 남북협력기금으로 마련됐다.

종단협의회 조용준 기획과장은 “이번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원만한 이뤄질 경우 불멸에는 인민학교 어린이 급식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종단협의회 월동물품 선적식을 8일 오후 2시 인천항에서 갖는다. 김원우 기자

‘화엄경 현토과목’ 강원 대교과 교재채택

교육원 교재편찬위원회(위원장 무관)는 1월29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16차 교재편찬위원회를 열고 무비스님(교육원장)의 ‘화엄경 현토과목’(전4권)을 강원 대교과 화엄경 교재로 채택키로 결정했다. 또 원명스님(서울 흥원사 주지)의 ‘승가의법’은 기초교육교재로 사용키로 했다.

무비스님의 ‘화엄경 현토과목’은 우리말 토와 띄어쓰기 등이 돼 있어,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불은사판 화엄경소초’의 이두토와 문장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기 어려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명스님의 ‘승가의법’은 10년간 행사교육을 담당한 경험을 바

‘현대’ 만평 김영민

건강한 사회를 위해...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청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진(사진, 사도, 미담, 넌름 등)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이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

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탕으로 각주 및 해설을 달아 예경의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명우 기자

포교사단 정기총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1월 26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평택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전국 6개 지역 사단과 LA포교사단에서 179명의 포교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의 입재식에서는 제2대 포교사단 임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7억3천백만원의 올해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포교사의 역량 강화와 포교회관 건립 불사, 각 분야에서의 활발한 포교 활동 전개 등을 중점 사업으로 정했다.

김재경 기자

올 40대 사업과제 선정  
 조계종, 불교역사기념관 최우선

조계종은 1월29일 2002년 40대 사업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조계종은 사업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1순위 10개, 2순위 10개, 3순위 20개를 선정하고 예산집행도 우선순위 순으로 집행키로 했다.

최우선 10대 사업과제로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 △월드컵문화사업 △불교문화체험 사업 △통합종단 40주년 기념사업 △국립공원제도 개선 및 사찰환경 보존활동 △국가법령 개

페 추진 △달마넷 활성화 △고시 및 법제정착 △조계종 수행체계 연구 △신도기본교육 확대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또 우선사업과제는 △신도교육체계 및 교재개발 △종무관 리시스템 구축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승려 연수 교육내용 개발 △교구분사 종무체계화 △종무행정강화 개설 △교회 인텔·정보·단체 DB △온라인종무행정서비스 강화 등이다.

김원우 기자

선원 90곳, 정진대중 2101명  
 수좌회, 동안거 선사방함록 발간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는 1월 30일 ‘동안거 선사방함록’을 발간하고, 신사년 동안거에 결제 중인 전국 선원은 총 90개 선원, 정진대중은 총 210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정진년 동안거 정진대중보다 8개 선원, 160명의 정

진대중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동안거를 기하여 진주 두방사 남명선원과 고흥 금암사 금암선원, 대전 복전암 복전선원이 개원됐다.

선원수좌회는 동안거에 참가하는 결제대중이 매년 늘어나 5년전

인 1996년도 동안거의 큰방대중 1244명보다 550여명이 증가했으며, 10년 전인 1991년 동안거의 큰방대중 1077명보다는 700여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김원우 기자

본사사령  
 박봉영  
 命 취재1부 기자  
 2002년 2월 1일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주필: 김병규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풍: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편집국 (02)73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중앙승가대학교 2002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중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일반전형	특별전형
인문	불교학과	3	8
	역경학과	18	12
사회	포교사회학과	14	7
	사회복지학과	10	0
합계		45	27

※ 복수전공이 가능하며 타학과를 같이 전공하실 수 있습니다.

-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 특별전형  
 ◇ 지원자격: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4년) 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입학위원회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인성)고시로만 선발함
-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2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중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전형방법
- | 고교내신성적     | 필기(교리)고사   | 면접(인성)고사   | 합계            |
|------------|------------|------------|---------------|
| 40% (400점) | 40% (400점) | 20% (200점) | 100% (1,000점) |
-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본교 교학처 (김포학사)  
 ◇ 교부기간: 2002. 2. 8(금) ~ 2002. 2. 16(토) ◇ 접수기간: 2002. 2. 8(금) ~ 2002. 2. 16(토)  
 ※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중 토요일(9월,16일)은 오후 3시까지 원서 접수 \* 우편으로 원서교부 및 접수 가능
-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졸업 및 성적 기록 및 학생교육원 서명 또는 날인우 테이프 부착  
 2) 고교졸업(예정) 증명서 1부  
 • 대입경쟁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4) 승적증명서 1부  
 • 타종단 승려는 해당 중무원에게 발급  
 5) 주민등록 등본  
 6) 중무원장 추천서 (타종단 승려에 한함)  
 7) 사 간(가사수안 반명함판 3×4cm) 5매(제출 3매, 원서부착, 2매 별도)
-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학요강: 3,000원 2) 전형료: 60,000원
- ◆ 전형일정  
 ◇ 예비소집: 2002. 2. 18(월) 09:00 ~ 09:40  
 ◇ 필기(교리)고사: 2002. 2. 18(월) 10:00 ~ 11:10  
 ◇ 면접 및 인성검사: 2002. 2. 18(월) 13:00
-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시험,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 (031) 980-7777 (내선 7716)